

변화와 생존 사이...KBS 1박2일·SBS 집사부일체 정면승부

시청률 부진 '집사부일체', 1박2일 원년멤버 은지원 투입 '1박2일' 나인우 합류 분위기 ↑ ...방글이 PD 하차로 변화

일요 예능물이 변화와 생존 사이에서 격돌한다. SBS TV 예능물 '집사부일체'는 몇 년째 시청률 부진을 겪고 있는데, 새 멤버로 분위기 변화를 꾀한다. 그룹 '젝스키스' 은지원을 투입, 기존 멤버인 가수 이승기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두 사람은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인 KBS 2TV '1박2일' 원년 멤버로 시청률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박2일은 시청률 효자로 꼽히지만, 연출자가 교체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지원은 집사부일체 구원투수로 나선다. 탤런트 유수빈이 지난해 7월 합류한 후 약 9개월 만에 하차하면서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특히 은지원과 이승기 호흡에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1박2일을 비롯해 tvN 예능물 '신서유기' 시리즈,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 등에서 함께 했다. 김정욱 PD는 "은조딩"으로 불리는 은지원이 배움을 향한 열정을 불 태운다"며 "새로운 모습을 기대

해달라"고 했다.

집사부일체는 이승기가 전역 후 처음으로 고정 출연한 예능물이다. 이승기가 중심을 잡아줬고 개그맨 양세형, 그룹 '비투비' 육성재, 탤런트 이상준 등 멤버들의 캐릭터 조화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가수 전인권,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박인철 파워플레이스 대표 등 사부로 출연한 이들의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방송을 거듭할수록 사부 섭외 기준과 콘셉트도 애매모호해지면서 재미가 반감됐다. 탤런트 신성록부터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 이종격투기선수 김동현, 유수빈까지 멤버 변화가 잦아 고정 시청자도 이탈했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집사부일체는 몇 년째 시청률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하락세를 타고, 현재 평균 시청률 2~4대를 기록 중이다. 은지원이 합류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1박2일 시청률을 넘어설 지는 의문이다.

1박2일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최근 방글이 PD는 1박2일 시즌4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메인 연출을 맡은 지 2년 여만이다. 방 PD는 2007년 1박2일이 문을 연 후 첫 여성 연출자로 발탁됐다. 가수 정준영의 불래카메라 영상 파문에 이어 영화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 골프 의혹으로 약 9개월간 제작이 중단됐을 때 투입됐지만 위기의 순간에 빛이 발했다. 멤버들과 케미스트리가 돋보였을 뿐 아니라 여성 수장으로서 존재감도 입증했다.

1박2일은 지난해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탤런트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5인 체제로 재편됐다. 개그맨 문세윤을 포함해 래퍼 단단, 그룹 '코요태' 김종민, '빅스' 라비로 유지했다. 최근 탤런트 나인우가 합류, 분위기가 상승한 상태다. 은지원과 이승기를 섞어놓은 듯 뽀뽀하면서 허당기 가득한 매력으로 웃음을 줬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 이혜리, 연정훈 부인인 탤런트 한가인 등 게스트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재미를 더했다.

물론 1박2일의 여행 포맷이 2007년부터 15년 넘게 이어져 식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후 8시 방송하는 'KBS 2TV 주말드라



마를 보기 위해 틀어놓는 것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들려온다. 하지만 시즌4는 2017년부터 시작해 3년이 넘었음에도 시청률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KBS 입장에서 각종 논란에도 폐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유다.

한 지상파 PD는 "예능물도 트렌드 변화가

빨라 오랫동안 인기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거 등장해 시즌제가 자리잡았지만 지상파는 광고, 시청률 등을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멤버 변화, 게스트 투입 등을 통해 소소한 변화를 주면서도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 청춘야구단' 다음달 7일 첫방송



KBS 1TV 새 예능물 '청춘야구단' : 아직은

낮아웃' 편성이 확정됐다.

KBS는 11일 "청춘야구단이 내달 7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김병현이 청춘야구단 감독을 맡고, 정근우가 수석코치, 한기주가 투수코치로 활약한다.

KBS 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이) 막대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선수들이 간절했으면 좋겠다"며 프로를 꿈꾸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청춘야구단'은 '청춘FC'의 야구 버전이다. 실패를 경험한 청춘들이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도전의 가치를 전한다.

"마술을 믿습니까?"... '안나라수마나라' 다음달 6일 공개



넷플릭스(Netflix)는 11일 웹툰 원작의 드라

넷플릭스, 판타지 뮤직 드라마

마 '안나라수마나라'의 메인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안나라수마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소녀 윤아이와 꿈을 강요받는 소년 나일등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리한 마술사 리을이 나타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뮤직 드라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신비로운 분위기 속 세 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유원지, 환상적인 빛으로 둘러싸인 회전목마와 불꽃, 날아가는 나비와 비눗방울이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힘든 순간이면 나타나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라며 주문을 외우는 미스터리한 마술사 리을(지창욱 분)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윤아이(최성은 분)·나일등(황인엽 분)의 모습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어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는 마술사 리을의 미스터리한 등장으로 시작된다. 오래된 무

대에서 주문을 거는 리을의 움직임에 환상의 세계가 열린다.

리을은 버거운 현실에 놓인 고등학생 윤아 앞에 나타나 "네 마음이 고장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주문을 외우면 돼"라며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 캄캄했던 유원지와 거리가 빛으로 물들자 덩달아 밝은 얼굴을 띠는 윤아이는 "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서 진짜 마술사를 보내준 거라고 믿어도 될까?"라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내비친다. 전교 1등 나일등은 같은 반 친구 윤아이를 따라 유원지로 향하고 리을과 그의 마술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제작진은 "어른들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소녀 윤아이, 어른들에게 꿈을 강요받는 소년 나일등이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은 어른 리을을 만나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안나라수마나라'는 오는 5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뉴시스

구교환, 영화 '신인류:부활남' 출연 확정

동명 웹툰 원작 시리즈물로 제작

배우 구교환이 슈퍼히어로가 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11일 "구교환이 영화 '신인류 전쟁:부활남' 주인공을 맡는다"고 밝혔다.

'신인류 전쟁:부활남'은 동명 웹툰이 원작인 작품으로 만년 최준생 '석환'이 죽은 뒤 3일 후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영화다. 구교환은 주인공 석환을 연기한다. 연출은 '뷰티 인사이드'(2015)를 만든 백종열 감독이 맡는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원작 웹툰이 담고 있는 세계관을 이번 영화를 통해 확장해 시리즈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작품을 통해 선보일 세계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신인류 전쟁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리즈는 히어로들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신인류와 맞서 싸우는 전쟁을 그리게 된다.

'신인류 전쟁:부활남'은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성운, '라라팝!' 콘셉트 트레일러 공개



가수 하성운이 새로운 신곡 콘셉트를 예고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애플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하성운의 신곡 '라라팝!' (LA LA POP!) 콘셉트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실험실에서 연구원 복장을 갖춘 하성운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하성운 곁에는 현미경과 각종 플라스크가 놓여있다. 마치 날씨를 감독하는 관제사를 떠올리게 하듯 뒤편에는 그래프, 수식, 기호가 가득한 거대한 질판이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하성운은 자신의 곁을 바쁘게 지나가는 수많은 연구원 사이에서 노트를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봄을 담은 봄을 담은 영화'...광주극장 독립영화 6편 기획전

봄의 상쾌함과 세상의 부조리를 꼬집은 독립영화 광주극장에서 잇따라 상영된다. 광주극장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봄을 주제로 제작된 독립영화 6편을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봄을 담은 봄을 담은 영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태어나길 잘했어' '복지식당' '재춘언니' '불도저에 탄 소녀' '위대한 계약-파주, 책, 도시' '소설가의 영화' 등이다.

최진영 감독의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다한중 때문에 괴로워 하고 있는 '춘희'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성장담을 그린 영화이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서울독립영화제·광주여성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영화 '복지식당'은 사회포켓 제도 모순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인권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 '재춘언니'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려했던 기타 기능공 '재춘'이 부당 해고를 당한 뒤, 문학,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연대를 통해 복직 투쟁하는 모습을 그린 노동·예술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수상,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 특별상(평론경쟁 부문)을 수상했다.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는 갑작스런 아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간 연속 상영 예정



의 사고와 살 곳까지 빼앗긴 채 어린 동생과 내몰린 19살의 헤영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는 현실적인 드라마이다.

이 밖에도 세계 유일의 책을 위한 도시로 탄생한 파주출판도시의 모습을 그린 '위대한 계약-파주, 책, 도시'와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흥

상수 감독의 27번째 장편 '소설가의 영화'도 관객을 만난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봄이 전해주는 새로움과 신선함을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며 "다양한 독립영화를 통해 인생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